

#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3년만에 재가동

호주 20명·독일 8명 등 참여학생 총 28명... 17일 출국

학생·학부모·담당교사·인솔교사 등 참여발대식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2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재가동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현장학습 참여학생과 학부모, 담당교사, 인솔교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은 모두 28명이며, 호주(20명)와 독일(8명)로 나뉘어 진행된다.

호주 현장학습단은 조리·제과·제빵 9명, 헤어미용 4명, 자동차정비 3명, 용접 3명, 원예조경 2명, 사무회계 2명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독일로 떠나는 학습단은 기계가공분야(CNC) 학생 8명이다.

현장학습단은 오는 17일 출국한 뒤

12주간 어학연수와 기술연수, 현장실습,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한 뒤 12월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현장학습 이후에는 현지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학 등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맞춤형 상담과 관리·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이 12주간의 현장학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뿐 아니라 국제 교류 수업,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해외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4일 2층 강당에서 2022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 학생은 모두 28명이며, 호주(20명)와 독일(8명)로 나뉘어 진행된다.

## 도내 특성화고 학생 121명 '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

오늘부터 3일간 대전서 개최

도내 10개 특성화고 학생 121명이 전북을 대표해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5~17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전북 대표 학생들이 참가, 열띤 경쟁을 펼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상업경진대회는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5월 개최된 전북상업경진대회에서 금·은·동상 수상한 학생들이 전북 대표로 선발됐다.

대회는 경연 종목에 △경제골든벨

△창업동아리엑스포 △동아리콘서트 △대회홍보크리에이터 등 4개, 경진 종목에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I·II △세무실무 △ERP(전자적 자원관리)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등 12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개최식 및 4개 경연 종목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2개 경진 종목은 4개 학교(대전여상·대전국제방송고·대전대성여고·대전신일여고)에서 분산 개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해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대회"라면서 "전북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전북 권역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과확산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북 권역 원격교육 활성화

전주비전대, 성과확산 공유회

전주비전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영입)는 전북 권역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과확산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확산공유회는 1~2차년도 전북 권역 성과, 3차년도 추진방향 공유, 학점교류 확대를 위한 전북권역 학점교류 교과목 우수 사례 공유, 원격교육 발전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입 센터장은 "코로나19 N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학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졌으며, 공유와 협력을 통한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게 됐다"며 "향

후 지역 전문 대학들의 원격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원격 교육이 잘 정착되고,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와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목표로 전북권역을 포함한 10개 권역센터를 선별해 권역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권역에는 전주비전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컨소시엄 전문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권역 내 16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도박문제로 어려움 겪는 학생들에 서비스 제공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우석대 재학생 대상 예방 홍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이희정)는 14일 우석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 한일장신대 등과 연합해 각 대학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온 전북센터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우석대 학생들에게 도박문제 치유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도박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선별검사, 현장 상담, 상담전화 1336과 네티즌 이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홍보 물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도박문제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희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박문제 위험군을 조기 선별 및 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는 14일 우석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도박에 대한 위험성을 일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시행선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단이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북지역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

인 치유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국번없이 1336이나 온라인 네티즌(http://netline.kcgp.or.kr) 상담상담을 통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내년도 공립 유치원·초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도교육청, 유치원 22명·초교 45명 등 총 79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유치원 교

사 22명(장애 2명), 초등교사 45명(장애 4명), 특수유치원교사 2명(장애 1명), 특수초등교사 10명(장애 1명) 등 총 79명(장애 8명)이다.

원서접수는 10월 3~7일 5일 간 전라북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

1차 시험은 11월 12일, 제2차 시험은 2023년 1월 4~6일 3일 동안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12일, 최종 합격자는 2023년 1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사항-고시/공고)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사항-고시/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학생 정보기기 활용 급증... 학부모 대응 능력 함양

도교육청,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9차례 걸쳐

'2022년 미디어 리터러시 학부모교육'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 '2022 미디어 리터러시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리터러시 학부모교육은 학생·청소년의 정보기기 활용 급증으로 학부모에게도 대응 능력과 대안적 해석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런 교육은 특강과 집합교육, 디지털 미디어 제작 교육 및 실습 등의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15일 순서숙(건국대학교) 교수의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현대인의 삶 특강을 시작으로 22일과 29일에는 박미영(한국 NIE협회) 대표의 '뉴스를 활용한 전략적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에서 창의력 키우기'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이어 10월 13일에는 김영부(서울 동북고) 교사의 '공부의 강력한 힘' 문해력, 10월 20일은 박미영(한국 NIE협회) 대표의 가정에서 지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10월 27일에는 조성

백(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뉴스 교육적 활용과 비판적 읽기 강의'가 준비돼 있다.

가지막으로 10월 8일과 29일에는 각 초·중·고·대학생·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접근 및 제작' 실습이 진행된다.

강의는 오전 10시~12시까지 8층 회의실에서, 실습은 완주미디어센터에서 각각 실시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각 교육일 2주 전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e.go.kr/parents/index.js)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음식에 대한 이야기  
과학과 여행으로

전북대 평생교육원

이강민 명예교수 초청

내일 인문학 특강 진행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은 16일 오후 3시 이강민 명예교수(분자생물학과)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은 매일 주제별로 명사들의 삶이 부영된 이야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채워주고 있다.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인문학 특강에서 이 명예교수는 '행복한 음식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음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리에 과학과 여행을 덧입힌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다.

한편 이번 인문학 특강은 전북 지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c.jnu.ac.kr/)와 전화(063-288-002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체육과학대학장에

이철원 체육학과 교수 임명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장에 이철원(체육학과) 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철원 체육과학대학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부임해 체육측정평가에 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체육부장과 학과장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운동재활학회 부회장과 전주시통합추진위원회 연구자문위원, 완주군 통합체육의 자문위원 등을 수행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도내 우수기업

탄소산업 인력 배출 '맞손'

원광대학교가 탄소산업 우수인력 배출에 집중한다.

원광대는 창의공과대학 탄소융합공학과가 전북지역 우수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채용협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동참한 업체는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에너비메타리솔루션(주)과 탄소섬유 활용 수소탱크 제조업체인 (주)에스원소재, 가전·디스플레이 유리를 제조하는 제일유리(주), 탄소 발열체 제조업체인 (주)BSM신소재 등 4개 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탄소융합공학과 재학생 15명이 졸업과 함께 이들 업체에 채용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4학년 조기 취업을 위한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진행하고 이수자 중 결정시유가 없을 경우 당해 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성태 창의공과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융합공학과 졸업예정자 50% 이상 취업이 확정돼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고,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뉴시스